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5/21℃ 목포 15/19℃ 여수 15/19℃

단기 4342년 (음력 9월 24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19호 1판 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역 문화거점단지 개발 송정역 광산업 연계단지로

KTX 역세권 개발 본격 추진

KTX 역세권인 광주 송정역이 친환경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생산거점으로 조성되고 광주역은 문화중심도시의 문화거점 단지로 개발된다.

〈관련기사 3면〉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국 16개 KTX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르면 역세권 포함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올 연말까지 기본구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구상안은 전국의 KTX역세권을 지역의 광역경제권별 도시재생 및 특성화 발전전략 등과 연계해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내년 중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법·제도가 갖춰진다.

광주시는 개발 구상안 마련을 위해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송정역, 광주역 개발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광주역 일대 38만900㎡, 광주 송정역 일원 31만9천800㎡를 역세권 개발 가능 연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KTX개발 구상안에 따르면 송정역과 광주역은 환황해권 생산 및 문화의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송정역의 경우 평동·소촌·하남 산단 등과 연계해 광소재, 친환경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벤처 기업 등을 유치해 광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 광주역 일원은 광주문화중심 도시 사업에 맞춰 문화거점단지로 조성하되 광주역 신역사를 복합역사로 개발하고 노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심을 재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시는 올말 말 정부 건의에 앞서 광주역·광주 송정역 역세권 개발사업 구상을 '2020 도심주거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장기 전략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2014년 KTX 완전 개통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년 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해 KTX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건폐율을 종전보다 완화해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동대구역, 용산역, 광명역 등 가운데 1~2곳을 내년 초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한다.

시범 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인허가를 쉽게 하고,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등 속도감 있게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반경 500m 거리의 직접 역세권과 반경 2~5km 거리의 간접역세권을 포괄하는 통합 구상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새로운 도심 성장축이 되는 한편,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KIA 타이거즈가 9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한국시리즈 V10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5천여명의 야구팬들이 참가한 가운데 선수들의 장기자랑·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롭고 흥겨운 프로그램으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최현배기자 choi@

영웅들과 함께 뜨거운 밤

KIA V10 축하 한마당 소녀시대 등 공연 성황

KIA 타이거즈의 우승을 기념하는 축제 한마당이 열렸다.

KIA는 9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2009한국시리즈 우승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9시즌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5천여명의 팬들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팬 사인회 등 식전행사에 이어 오후 6시30분 개회사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번 행사는 1·2·3부로 나눠 진행됐다.

12년만에 KIA 품에 안긴 우승트로피 입장과 함께 시작된 1부 행사에서 '루키' 안치홍은 밝은안과, 구단과 함께 적립한 후원금 80여만원을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한국시리즈 하이라이트 영상 상연으로 뜨거워진 행사 분위기는 선수단 장기자랑으로 한껏 무르익었다.

2부 행사에서 신인 안치홍·정성철·정용운과 투수 전태현 등은 그동안 준비한 장기자랑을 선보여 팬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인기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여성 9인조 그룹 소녀시대와 락밴드 노브레인 등은 타이거즈 'V10'을 축하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팬들에게 짜릿한 우승의 감동을 다시 한 번 선물한 우승 축하 행사는 성대한 불꽃놀이로 그 막을 내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종플루 학생 예방접종 시작

10일 전남지역 7개 특수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 학생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관련기사 6·7면〉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54만 여명의 학생들이 첫 접종 대상이며, 이후 연말까지 영유아나 임신부, 내년 초까지 노인 및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순으로 예방백신을 맞게 된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당초 예정일에서 하루 앞당긴 10일부터, 광주시는 선명학교, 은혜학교 등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각각 첫 접종에 착수한다. 학생 접종 대상은 광주시가 304개교 26만540명, 전남은 962개교 28만1천여 명이다.

하지만 지난 5일 질병관리본부가 배송한 예방백신은 전체 예방접종 물량의 10%에 불과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백신 확보량이 부족한 만큼 우선 초등학교와 저학년,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접종을 위해 시와 도는 의사 1명·간호사 1명·행정요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각각 31개팀과 169개팀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시의 경우 의사 15명을 확보하지 못해 질병관리본부 군의관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전남지역 전체 학생 접종 대상자 28만1천 명의 10% 정도인 2만 명 분의 백신밖에 없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12일 15% 등 24일까지 일정 비율을 보내주기로 했으나, 접종에 맞춰 백신이 공급될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한편 시와 도는 예방접종을 앞두고 예방접종 요령을 홍보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율통합 주민의견 조사 오늘 발표

통합대상지역 다음달중 최종 확정

지난 9월 정부에 행정구역 자율 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의 통합 여부가 10일 가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한 주민 의견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일정을 1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률이 높은 곳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이달 내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통합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한다.

하지만, 무안반도(목포·무안·신안)와 광양만 권(순천·여수·광양·구례) 등 전남 자율 통합 대상 두 곳은 목포와 순천시를 제외한 여수·광양·구례, 무안·신안군 의회가 이날 오후 '시·군 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통합에 반발하고 있어 주민 의견조사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더라도 주민투표까지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군에서 지자체별로 주민 500~1천 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행안부는 이 조사에서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 중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은 곳은 원칙적으로 통합 대상 지역으로 삼고, 반대가 많은 곳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네이버 뉴스캐스트 'My뉴스 설정'에서 '광주일보'를 클릭하세요